

한국경제 전망과 주류산업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1. 지표경기는 지난해 3분기 바닥 통과

각종 통계 지표로 볼 때 한국경제는 지난해 3분기중 바닥을 치고 회복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기사이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7월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국면으로 진입한 점이다. 동행지수는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도소매판매, 수출액, 수입액, 비농가취업자수, 건설기성액 등 7개 지표를 하나로 묶어 실물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다.

경기사이클이 하강국면에서 상승국면으로 반전한 것은 산업생산이 늘고 제조업 가동률이 정상가동률인 80% 이상으로 회복된데다 수출이 과거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힘입은 것이다. 다시 말해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는 장기간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소매판매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다 올들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설비투자도 작년 들어 3분기째 감소세를

■ 목 차 ■

1. 지표경기는 지난해 3분기 바닥 통과
2. 올해는 5% 안팎 성장 전망
3. 돌발악재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세 상당기간 이어질듯
4. 해외궤 악재 만만치 않아
5. 한국경제 내부의 악재도 문제
6. 금리는 1~2% 상승, 물가는 안정될 듯
7. 최근 포도주는 수입호조, 맥주와 위스키 수입은 둔화

지속했다. 결국 소비와 설비투자는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를 한 셈이다. 건설투자는 적어도 작년말까지는 활발하게 이뤄져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2. 올해는 5% 안팎 성장 전망

일정기간 동안에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창출액, 즉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가리키는 경제성장률도 실질기준(전년동기비)으로 작년 1분기 3.7%에서 2분기 1.9%로 낮아졌으나 3분기에는 2.3%로 높아졌다. 특히 계절조정 GDP가 전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기의 연속적인 변화를 포착하는데 유용한 전기비 경제성장률의 경우 올 1분기 -0.4%에서, 2분기에는 -0.7%로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3분기에는 1.1%로 반등했다. 이는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반등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호조를 배경으로 매월 사상 최대의 월별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하루 수출금액만도 9억 달러 안팎, 한달에 200억달러 안팎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이 덕분에 무역수지 흑자도 매월 20억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록한 당초 예상을 웃도는 무역흑자 150억달러는 경기회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고 여겨진다. 특히 한국 수출호조는 중국특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국 수출호조에 크게 힘입고 있다.

지난해 전체 무역흑자의 88%에 해당하는 132억달러를 대중 무역흑자가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우회수출기지인 홍콩에 대한 무역흑자 111억달러까지 고려한다면 중화경제권에

대한 흑자가 전적으로 한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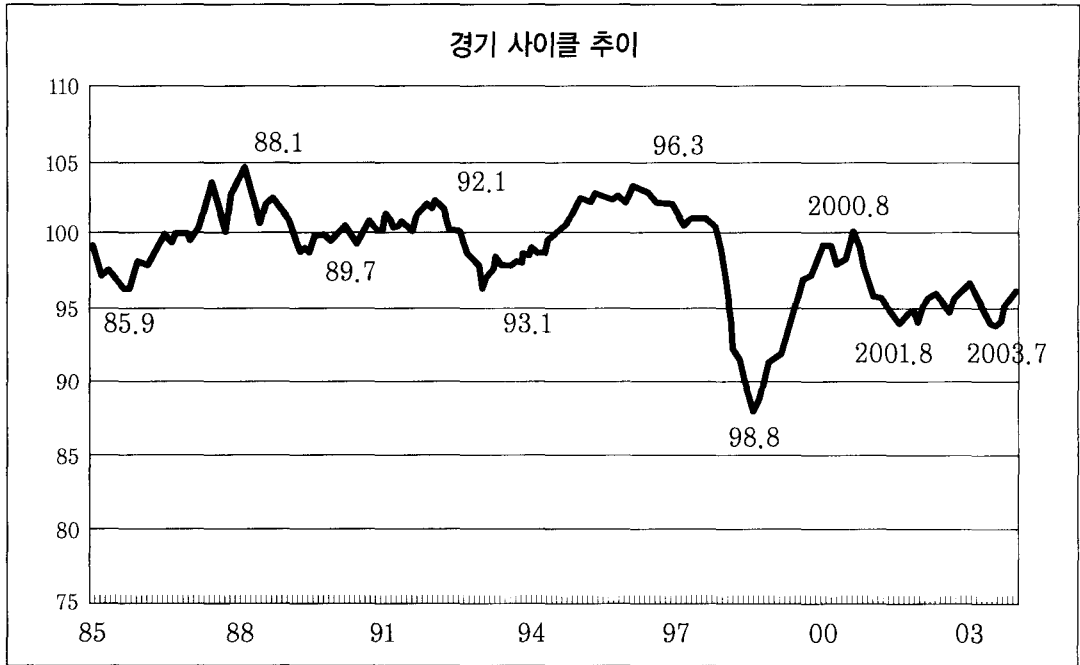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나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5% 안팎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망기관들의 견해다. 올해는 수출호조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으로 확산돼 하반기가 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수출호조에 따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경상수지(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흑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전망을 종합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20억~90억 달러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돌발악재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세 상당기간 이어질듯

경기회복세는 대통령 탄핵정국과 총선 등에 따른 정치불안과 대형테러와 같은 국내외 돌발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과거에 경기가 바닥을 친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회복세가 2년 내지 3년은 지속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년 3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여겨지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경제도 바닥을 치고 뚜렷한 회복궤도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한국경제의 회복세 지속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3~10개월후의 경기향방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작년 5월에 바닥을 치



주)경기사이클은 동행지수순환변동치로 파악

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앞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경기향방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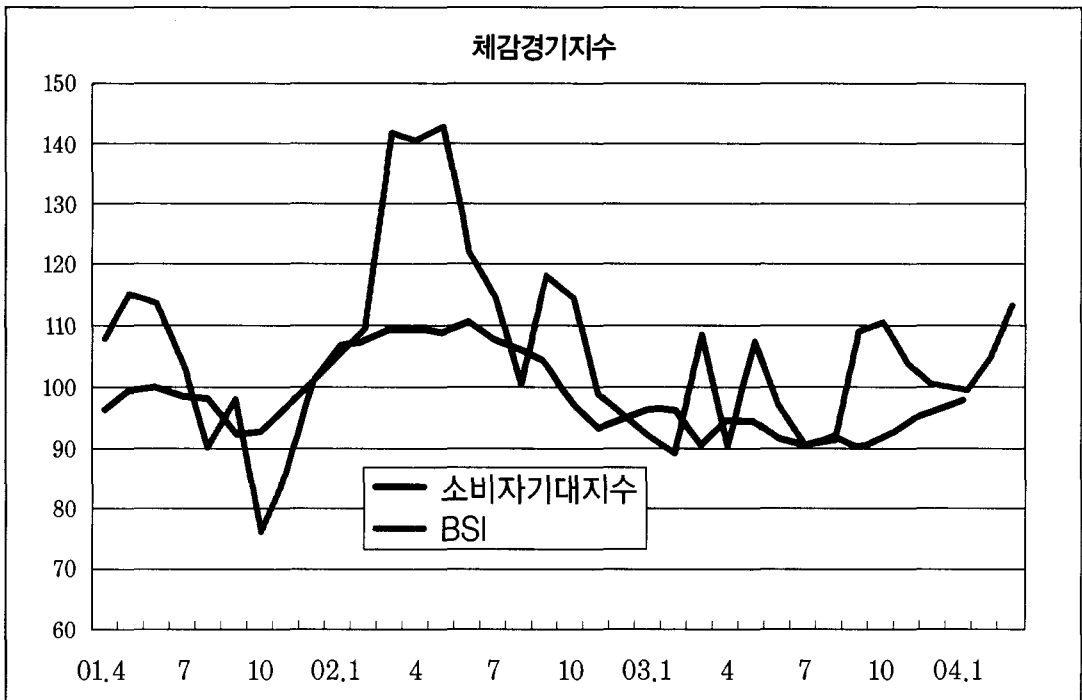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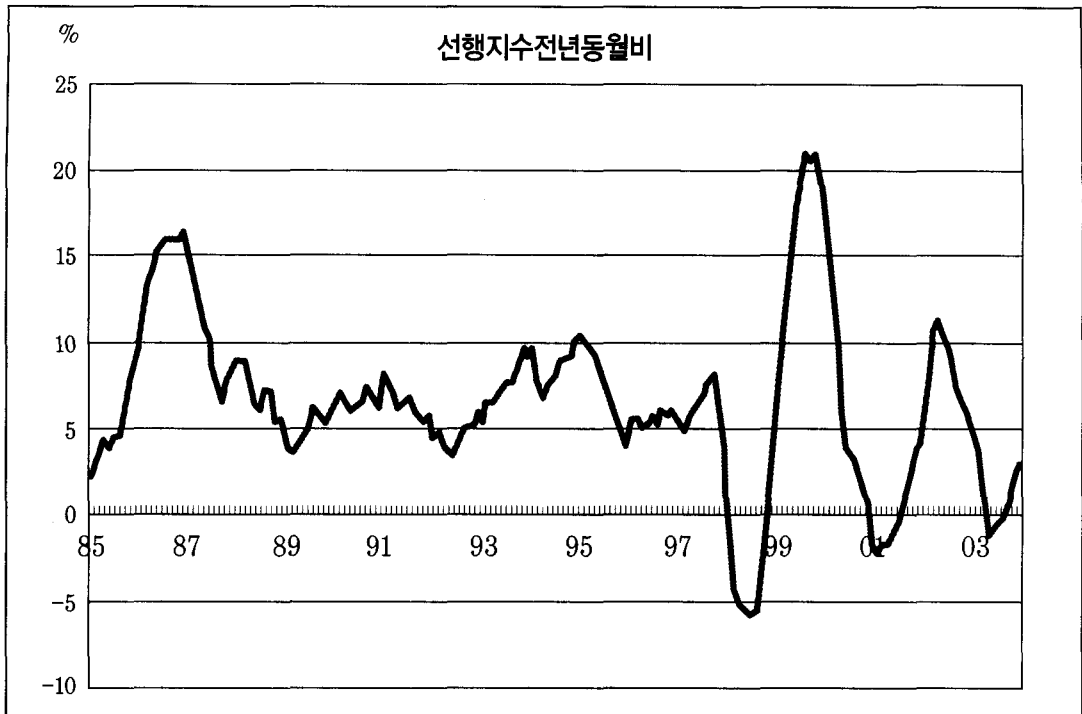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경기회복 지속을 낙관케 하는 근거가 된다. 2002년 5월의 143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작성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그후 가파르게 떨어져 작년 2월에는 89를 기록하기도 했다. BSI가 100을 밑돌면 미래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이므로 그동안 기업의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SI는 지난해 9월 이후 미약하나마 상승세를 보여 올 3월 현재 114.9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경영도 보수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게 돼 그만큼 일정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등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예고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6개월후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말 현재 447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살아날 가능성은 낮으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4. 해외궤 악재 만만치 않아

정치적 불안이나 국제 테러발생 가능성 이외



에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 악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악재가 우리경제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충격을 줄 경우 경기회복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밀려오고 있는 악재이다. 70년대말 이후 25년만에 찾아오는 원자재 값 상승, 특히 '제3차 오일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폭등하고 있는 유가는 한국경제에 큰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유를 비롯한 철광석 비철금속 원면 곡물 등 거의 대부분 원자재 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어섰고 설상가상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기습 감산결정까지 겹침으로써 유가 상승속도는 더욱 빨라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제3차 오일쇼크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철광석은 물론 고철과 선철 등 철강의 주원료 값이 최근 1년새 2배 가까이 오른 것을 비롯해 니켈과 아연 동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일반인들의 식생활과 직결돼 있는 대두(콩)와 밀 옥수수 등의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은 달러화 약세 전망에 따라 국제 투기자금이 상품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가 세계경제 회복속에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원자재를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세계공장'으로서의 중국 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여기에 아세안 인도 브라질 등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들의 수요급증까지 겹칠 경우 원자재값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자재 값 뿐 아니라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등 해상운임도 세계 물동량 급증에 따라 크게 오르고 있어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에 더해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아무리 높은 값을 제시해도 원자재나 선박을 제 때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 행진도 걸림돌이다. 달러화 약세 지속은 우리의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그 때까지는 달러화 약세 기조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올 2월초에 개최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대표들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Excess Volatility)과 무질서한 움직임(Disorderly Movements)이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환율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율 향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성명이 '환율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은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환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향후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절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7성명에서는 환율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역흑자와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설사 환율 유연성 부족 국가로 지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환율이 조정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이 즉각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만일 중국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이는 원화를 동반 절상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임은 시간의 문제나 다름없다. 또 일본 외환당국이 국제사회 압력에 밀려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자체를 누그러뜨릴 경우 엔화절상 원화 절상 현상이 보다 가속화할 수 있다.

한국도 중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교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취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교환율 정책 포기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이번 G7성명을 계기로 한국의 각 경제주체들이 교환율정책에 익숙해진 체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해만 해도 원화는 엔화나 유로화에 비해 절상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앞으로 원화절상이 본격화될 경우 그 절상폭이 엔화나 유로화보다 월등히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중국 등 해외경제의 거품붕괴 가능성 제기도 악재다. 지난해 3분기 8.2%(전기비 연

율)로 20년만의 최고성장률을 기록한 미국경제는 사실 부시대통령의 대폭적인 감세정책과 이에 따른 소비촉진,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단기 급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올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감세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미국경제 성장세가 둔화돼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난해 9.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도 건설 경기의 거품형성 가능성과 은행의 과다대출, 시중의 과잉유동성 등으로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1%로 한국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5. 한국경제 내부의 악재도 문제

우리경제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불안요인도 문제다. 배드뱅크(Bad Bank)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발표후 연체율이 올라가 은행경영을 압박하거나, 언제 시행될지

(주요 기관 올 경제전망)

단위 : 전년대비, %, 억달러

구 분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5.2	60	2.9
KDI	5.3	74	2.8
삼성경제연구소	4.3	24.7	2.8
LG경제연구소	5.1	83	2.8
금융연구원	5.8	65.3	2.7

도 모르는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 방침발표로 주요 내구재 소비가 단기적으로 위축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창출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상승일로에 있다.

올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악화될 가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0월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 증가율이 높아 건설투자가 활기를 띠고 이것이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으나 작년말부터 건설관련 선행지표들이 악화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올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면 전체경기도 둔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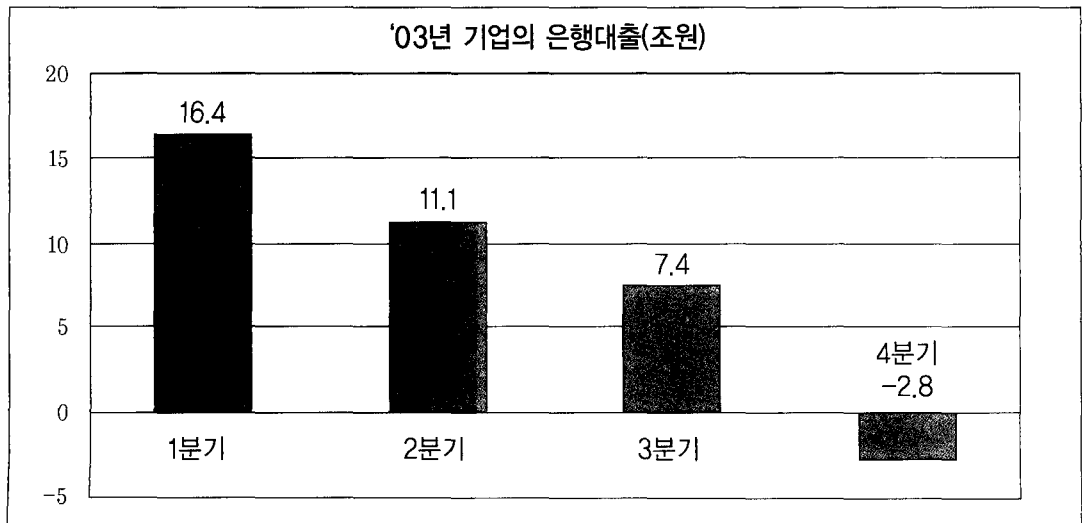
6. 금리는 1~2% 상승, 물가는 안정될 듯

올해 금리는 작년보다 1~2%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

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2% 후반에서 올해는 이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진 5%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 물가는 원자재난에다 여름철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 자연조건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격의 향방이 중요하나 원자재난이 한국경제에 더 이상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소비자물가가 3%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는 선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설대로라면 금리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의 성장탄력성이 과거보다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동일한 성장률 상승이라 할지라도 과거만큼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설비투자부진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2002년말 현재 대기업을 여유자금은 46조원으로 2001년말의 32조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린다할지라도



당분간 자체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기업들의 은행자금 대출규모는 분기별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기업의 대출은 그다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최근 포도주는 수입호조, 맥주와 위스키 수입은 둔화

IMF외환위기 직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소비 둔화에 따라 주류수입은 급감해 98년의 경우 맥주는 -83.7%, 위스키는 -42.4%, 포도주는 -71.5%의 감소율을 보인다. 그러나 99년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되면서 주류수입도 크게 늘어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맥주 수입은 2002년 들어 크게 둔화돼 동년 증가율이 7.9%에 그쳤다. 지난해는 맥주수입증가율이 더 낮아져 6.7%에 그쳤다. 수입액은 1,366만달러였다. 이러한 맥주 수입둔화는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와

국내업체들의 신제품개발과 제품차별화로 내수시장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입규모가 가장 큰 위스키의 경우 2001년에 수입규모가 2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02년에는 2억 4,794만달러로 22.5%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특히 9월 이후 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연간 수입증가율도 1%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액은 2억 5000만달러였다. 올해 들어 2월까지도 위스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4%나 줄어들었다. 이는 올들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접대비 규제에 따라 내수가 크게 둔화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포도주 수입은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포도주는 99년에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2002년 27.4%, 지난해 55.6%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포도주 수입액은 4,578만달러였다.

[주류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맥 주	5,181 (53.3)	842 (-83.7)	1,941 (130.4)	5,022 (158.8)	11,866 (136.3)	12,802 (7.9)	13,664 (6.7)
위스키	190,541 (1.9)	109,655 (-42.4)	115,919 (5.7)	180,194 (55.5)	202,355 (12.3)	247,941 (22.5)	250,401 (1.0)
포도주	22,809 (39.0)	6,491 (-71.5)	15,122 (133.0)	19,802 (31.0)	23,109 (16.7)	29,432 (27.4)	45,783 (55.6)

1) ()속은 증가율

2) 맥주는 MTI코드 015720, 위스키는 015750, 포도주는 015740